

# 포수엘로의 스포츠 콤플렉스

Sport Complex, Pozuelo, Spain

Architect : Alberto Campo Baeza, Spain

글. 이지현 Lee, Jihyun  
jihyun.lee815@gmail.com

이번 달에는 세계적인 스페인의 거장 알베르토 캠프 베자-Alberto Campo Baeza-의 팀이 설계한 스페인 마드리드의 포수엘로-Pozuelo-에 위치한 스포츠 콤플렉스를 소개한다. Francisco de Vitoria University 캠퍼스의 일부로 설계된 이 건물에는 스포츠홀과 강의실 뿐만 아니라 다용도실, 체육관, 수영장, 물리 치료실 등 대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해 다목적으로 쓰이도록 계획됐다.



그림 1) 스페인 포수엘로의 스포츠 콤플렉스



그림 2) 포수엘로 스포츠 콤플렉스의 배치도



그림 3) 각각 유리섬유강화 콘크리트 패널 GFRC (soild)와 반투명 상자(void) 마감해 다른 활동을 하는 공간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베자의 설계는 근대성-*Modernity*- 중에서도 서구유럽의 Contextualism, 즉 주변의 컨텍스트-환경 또는 도시 구성의 논리 등-에 새로운 건물이 어떻게 삽입되고 맞춰져서 하나라는 전체가 되는지에 대한 이론의 훌륭한 방향성과 예시를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스포츠 복합 센터 역시 매스를 구성함에 있어서 건물의 최대높이와 정렬은 캠퍼스의 배치에 따라서 분절·조정됐다. 2개의 깨끗하고 볼륨적으로 잘 정의된 상자는 저층 빌딩으로 연결되고 이의 지붕이 테라스가 되어 그 앞의 공간을 포용한다. 캠퍼스의 주요 건물의 평균 높이와 일치하도록 건물의 바닥 치수를 50cm×60m으로, 최대 높이는 12m으로 최대한 통일시켰다.

건물은 크게 스포츠 활동을 담당하는 매스와 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다른 하나의 매스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의 활동이 가진 특성에 따라 볼륨의 물성이 독특한 방법으로 구별된다. 즉 스포츠홀은 커다란 반투명 상자로서 유리섬유강화콘크리트(GFRC)와 투명 유리로 마감되었고, 건물의 베이스 역할을 하는 낮은 상호 연결 건물과 수영장에서부터 올라오는 강의실이 담긴 매스는 육중한 흰색 노출콘크리트를 이용해 마감처리 됐다.



그림 4) 투명성을 극대화한 스포츠 홀 외부

스포츠홀의 배치 방향과, 앞서 언급한 건축재료의 선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햇빛에 많이 노출된 남측 파사드는 유리섬유강화콘크리트(GFRC) 패널, 북측 파사드는 반투명 유리, 남서측 파사드는 캠퍼스의 메인 광장과 연결성을 강조하는 투명 유리로 건물 전체의 시각적 밸런스를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적절히 컨트롤한다. 어두워지면 이 반투명 상자의 빛은 여과, 통제되면서 캠퍼스의 메인광장의 스케일감과 투명성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투명성의 메커니즘은 상부의 안쪽 중정에 면한 북동측 파사드에서 반복된다.

재료의 배치와 연결성에 의한 시각적 인과 관계는 캠퍼스 광장과 스포츠 시설 사이의 논리에 그대로 적용된다. 교실 단지가 배치된 남서측 파사드는 이 건물 전체의 배경 역할을 하며 캠퍼스 전체의 ‘하나’를 이루며 Contextualism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5) 철골트러스 구조 위 패널 마감이 된 스포츠 홀의 내부





그림 6) 구조 및 창호 크기는 사람의 스케일감에 맞도록 조정되었다.

기능면에서 볼 때 스포츠홀, 수영장 등의 장스팬을 위한 구조체 설계는 최종 마감 재료의 반투명성을 미리 염두해두며 이루어졌다. 스포츠홀은 철골 트러스 구조로, 철골 구조의 가느다란 부재의 가벼움이 GFRC와 같은 가벼운 재료와 잘 어울린다. 다른 한편으로 수영장을 포함한 교실 캠펙스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체로 이 역시 구조적인 기둥이나 거더와 빔들을 고스란히 노출하여 공간에 통제된 규칙성-*Order*-과 리듬감-*Rhythmicality*-을 주고 있다. 철골구조 vs.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배합은 앞서 언급했던 폐쇄적이고 육중한 것과 가볍고 투명한 박스의 적절한 조화에 일관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알베르토 캄포 베자는 도시의 스케일감과 각각의 구성요소들의 공간을 형성하는 논리성에서부터 시작하는 설계적 접근, 구조 설계, 마감 재료와 구조체와 부착되는 방식으로 그의 설계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대한의 간소함으로 풀어내는 디테일의 미학 등의 설계방식은 미스 반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의 철학 'Less is More'을 상기시킨다.

그림 7) 철골콘크리트조의 빔 등이 바로 마감이 되는 수영장 내부

